

긴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차치하고 우선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중보자분들께 꼭 알려야 할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그간 국내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지원해 오던 매사이 ‘축복의 씨암 교회’의 후원을 지난 12월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탄절 전에 매사이의 빵하교회 출신 전도사로부터 성탄 인사와 함께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맥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맥목사의 최신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맥목사가 물의를 일으켜 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있어선 안 될 비윤리적인 사안이라 오버브룩 병원의 송 선교사, 빵하교회 여호수아 전도사 등과 문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노회의 결정 등을 문의한 결과 지난 주에 C.C.T(Church of Christ in Thailand) 제2 노회에서 맥목사가 제명됐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직 맥목사 본인의 변명을 확인하진 않았지만(통화상으로 확인 할 사안도 아니고), 목사 개인의 도덕적인 일로 교단에서도 문제가 된 이상 후원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 치앙라이를 갔을 때부터 관계를 이어왔고, 또 ‘축복의 씨암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의 초석을 세웠던 만큼 아쉬움도 크지만, 목회자의 도덕적 결함을 묵인 할 수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도 제 개인의 이름 뒤에 붙는 교회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에 1월부터는 맥목사의 아내인 수리폰 목사가 ‘축복의 씨암 교회’의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후원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기는 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지만 다달이 그 금액을 보낼 땐 아직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무언의 표시였는데 그 관심이 끊어지는 것 같으니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더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에 시카고와 위스콘신을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예전부터 기도해 주시던 가족과 같은 목사님 가정의 초청으로 잡혀있던 일정을 어머니가 편찮으신 중엔 확답할 수 없어 미루었었는데 어머니 장례 후 바로 연락을 주시며 그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머리로 식힐 겸 오라고 비행 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결정까지는 아내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정리가 늦어지며 11월 태국행이 무산되면서, 그러면 3월에나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당장 움직이기에는 여건상 재정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 티켓만 들고 갈 수는 없기에 전화를 드려 일정을 고사했습니다만, 그냥 보내준 티켓만 들고 오라는 재촉에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안은 채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연일 -15 ~ -20℃를 오르내리는 시카고와 위스콘신을……

다시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설’ 잘 보내세요~